

# 7만전자·10만닉스 기대... 외국인 매수세에 반도체株 훈풍

〈삼성전자 주가 7만원〉

〈SK하이닉스 주가 10만원〉

유진투자·유안타·IBK투자증권  
삼성전자 목표가 9만원으로 상향  
을 外인 9.1조 순매수, 상승세 주도

SK하이닉스 주가 9만7700원  
증권가 “하반기 투자 긍정적”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시스

반도체주 훈풍 기대감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세가 주목 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초 5만 원대에 그쳤으나 현재 7만 원대 탈환을 눈앞에 두고 외국인 등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의 실적 개선을 예측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7만 원대 문턱에 도착했다. 지난 22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6만8500원을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연달아 갈아치웠다. 외국인 매수세도 그치지 않아 ‘7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23일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8만2000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반도체 산업 전망 보고서를 내고 “여전히 불확실한

매크로(거시경제 환경)와 지정학적 변수들이 미해결 상태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감산이라는 카드로 충격을 흡수하면서 업황 반전을 꾀할 것”이라며 “아직 실적 반등 조짐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주가 변화는 실적 변화에 선행하기에 조만간 실적도 주가 반등을 따라 최악의 시점을 통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삼성전자의 2023년 실적에 대해서는 매출액 276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으로 전년 대비 9%, 7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제시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3사(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가 모두 감산에 동참하면서 공급 과잉이었던 메모리 수급이 3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으로 삼성전자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연초였던 지난 1월 2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5500원으로 6만 원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이후 삼성전자 감산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일본 정부 차원의 투자금 확정 등으로 반도체 수급 상태 개선이 예상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늘어난 모습이다.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 이달 23일

까지 삼성전자를 9조1034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1위도 삼성전자가 차지했다. 2위 역시 반도체주인 SK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렸지만 1조2314억 원으로 1위인 삼성전자와 약 7배의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3.32% 급등했던 19일에는 외국인 순매수 금액 6221억 원 중 5262억 원이 삼성전자 순매수 금액이었다.

이 연구원은 “2월 이후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4조6000억 원인 반면 삼성전자 순매수액은 6조9000억 원”이라며 “연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0~2022년 팬데믹 기간 삼성전자 주식을 30조8000억 원어치 순매도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5개월간 9조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 중”이라고 부연했다.

반도체주 우상향에 따라 SK하이닉스도 ‘10만닉스’를 바라보며 훈풍을 맞고 있다. 반도체주 기대감이 상승했던 19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3.95% 상승하며 9만7300원대로 성큼 올라왔다. 다만 SK하이닉스 역시 ‘10만닉스’를 눈앞에 두고 주춤하는 모양새다.

반도체 업황의 우호적인 흐름이 3분

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가의 투자 의견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김복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부진한 수요를 하회하는 공급으로 인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재고 소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3분기부터는 공급업체들의 생산이 연초 대비 2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하량 증가 폭에 따라 재고 소진 폭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도 “반도체 수요 회복이 다소 늦어진다고 가정해도 삼성전자의 20% 이상 감산에 따른 공급 축소 효과만으로도 하반기 글로벌 디램(DRAM), 낸드(NAND) 수급은 균형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반도체 가격하락 영향으로 글로벌 세트업체들의 반도체 원가 부담도 현저히 낮아져 향후 채굴량 확대에 따른 출하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동일한 의견을 보였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4일 종가는 각각 6만8500원, 9만7700원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증권사 “개미 모셔라” MTS 재정비 나서

신한투자 ‘신한알파3.0’ 첫 선  
현대차증권·하이투자증권도 리뉴얼  
한국투자, 투자 MBTI 등 서비스

최근 증권사들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이탈로 인한 수수료 수익 감소 등을 우려한 증권사들이 빠르게 MTS 재정비에 나서며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3일 새 MTS인 ‘신한알파 3.0’을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신한알파 3.0’은 고객의 니즈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만든 플랫폼으로 쉽고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신한알파 3.0은 보유 종목뿐 아니라 관심 종목, 매매 진행 중인 금융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담보, 유상증자, 배당 등)를 정리해 알람으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신한투자자 통계를 통해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 평균 보유수량, 매수 단가, 관심도, 함께 매수한 종목 등 다양한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현대차증권, 하이투자증권도 이달에 MTS를 리뉴얼했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16일 기존 ‘THE H Mobile’을 개편한 신규 MTS ‘내일’을 출시했다. 이번엔 직관적이고 간편한 사용자 환경 및 경험(UI·UX) 구축이 최적화되도록 했으며, 개인화된 콘텐츠, 다양한 주문 방식 등으로 MTS 플랫폼의 경쟁력도 확보했다. 또한 종목 관련 속보, 이슈, 공시 등 요약 정보 및 특히 기반 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투자정보’도 제공한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2일 새 MTS ‘iM하이’를 개시했다. 4년만에 기존 MT

S를 개편한 것으로 편의성과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오늘은 ‘화면에선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을 통한 실시간 시장 흐름·주요 종목·투자 키워드’, ‘자산은 화면에선 투자자의 자산 현황과 보유 종목·관심 종목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구형 MTS 서비스를 종료하고 신형 MTS 체제로 전환했다. 새 MTS는 주식 투자 패턴을 바탕으로 투자유형을 분석해주는 ‘투자 MBTI’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권사들은 MTS에 새로운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KB증권은 지난 3일 투자자가 직접 주도해 투자의 목적, 투자 성향 등에 적합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일 해외뉴스 실시간 번역·요약 서비스에 챗GPT를 활용했다. /원관희 기자 wkh@



페플라ستيك으로 만든 친환경 근무복을 착용한 (주)한화 건설부문 직원들이 인천다복마을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주한화 건설부문

## 친환경 ‘포레나 근무복’ 100여개 현장 도입

(주)한화 건설부문, 100% 재활용 제작

(주)한화 건설부문은 친환경 소재로 만든 ‘포레나 근무복’을 전 현장에 도입해 자원 순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주)한화 건설부문은 페플라ستيك을 업사이클링해 만든 근무복을 100여개의 건설현장에 지급한다. 혹서기를 맞아 지급하는 이번 포레나 근무복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Recycled polyester)’로 제작됐다.

재활용 폴리에스터의 주재료는 버려지는 플라스틱 PET병과 카페 일회용 컵, 필름 등으로, (주)한화 건설부문은 임직원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근무복에 환경 친화적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친환경 의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자원순환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도입된 포레나 근무복은 일반 소재에 비해 섬유 제조공정이 단순해 생산 에너지를 약 60%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대환 기자 kdh@

## SK(주), 회사채 6000억 자금조달 성공

수요예측에 모집액의 6배 몰려  
개별 민평금리보다 낮은금리 발행

회사채 시장 큰손인 SK(주)가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모집액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이 몰리며 자금 조달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3일 공시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SK(주)는 최초 모집액 3000억원의 두배인 6000억원을 개별 민평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3년물 1500억원 -7bp, 5년물 2900

억원 -10bp, 7년물 1100억원 -20bp, 10년물 500억원 -45bp로, SK는 지난 2월 흥행에 이어 또 한번 개별민평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SK(주)가 당초 모집 신고한 금액은 3000억원이었으나 19일 진행된 수요예측에 모집액의 6배에 가까운 1조7800억원의 자금이 몰리면서 회사채 발행 금액을 6000억원까지 늘렸다.

SK(주)는 지난 2월에도 수요예측 흥행에 힘입어 모집액인 3000억원을 초

과한 3900억원의 회사채 발행에 성공했다.

SK(주)는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 모두를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SK(주)는 1700억원을 회사채 상환에, 4300억원을 단기 기업어음증권 상환에 사용한다.

SK(주)관계자는 “총차입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되 단기 차입금을 장기 회사채로 변경함으로써 회사의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단기 차입금 규모 축소 등 재무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DL이앤씨, 챗GPT 기반 ‘디보이스’ 구축

고객 상담내용 텍스트 전환·전송

DL이앤씨는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ChatGPT) 기술을 적용한 고객 응대 관리시스템 ‘디보이스(D-VOICE)’를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플랫폼인 ‘디레이크(DLak e)’에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업으로 챗GPT 4.0 버전 기술을 적용, 새로

운 고객응대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 시스템은 직원들이 직접 상담 내용 전체를 파악하고 일일이 주요 키워드를 선별한 뒤, 요구사항을 분류하고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상담 내용이 음성에서 텍스트로 자동 전환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이 챗GPT로 즉시 전송돼 1분 이내 요약이 이뤄진다. /김대환 기자